

4인조 젝스키스 “대중성 배제 NO, 더욱 뽕뽕 뭉칠 것”

첫 번째 미니앨범 ‘올 포 유’ 발매 기념 쇼케이스
타이틀곡, 90년대 감성 R&B 젝스키스 색 재해석

그룹 젝스키스가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장수원 4인 체제로 돌아왔다. 더욱 커진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이들이 2년 4개월 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으로 또 다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젝스키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올 포 유’ (ALL FOR YOU)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젝스키스는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장수원 등 총 4인 체제로 팀을 개편하고 첫 번째 활동에 나선다. 지난 2016년 젝스키스는 16년 만에 컴백해 5인조로 활동했으나, 강성훈이 개인적인 문제로 2019년 1월 팀 활동을 중단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계약을 해지하며 4인조로 재편됐다.

은지원은 이날 “팬들한테 오랜만에 특히 4명에서 인사드리게 거라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떨리고 긴박하게 느끼는 긴장감과 설렘이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인조로 나오게 됐는데 먼저 팬들에게 가장 죄송스럽다. 고지용을 비롯한 여섯명이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만큼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컴백했으니 각자 개인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4인조로 재편한 이후 첫 활동인 만큼 첫 미니앨범 ‘올 포 유’에는 멤버들의 역량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꿈’ (DREAM) ‘의미 없음’ (MEANINGLESS) ‘제자리’ (ROUND & ROUND) ‘하늘을 걸어’ (WALKING IN THE SKY) 등 총 5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올 포 유’는 90년대 감성의 R&B를 젝스키스의 색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아 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선명한 멜로

디 라인이 특징이다. 은지원은 “90년대 감성인데 젝스키스가 추운 겨울에 마음을 잘 녹여줄 곡”이라고 했다.

장수원은 “오랫동안 준비한 앨범이다. 이렇게 시간이 되지 준비하면서 물랐는데 ‘세 단어’처럼 이번 ‘올 포 유’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고 기대해주실지 그런 피드백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다. 그때 같은 감성이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은지원은 4인 체제로 팀을 재편한 만큼, 이번 앨범 작업에 멤버 각자 노력을 더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인 보컬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곡에 맞는 보컬로 꼭 꼭 채워놔야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치우쳐있지 않는 구성이라 생각한다. 곡 구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해서, 전부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앨범이다. 제가 아무래도 리더고, 녹음할 때 멤버들 특성을 잘 알아서 디렉팅을 했는데 이번 앨범엔 제가 딱히 한 게 없다. 멤버들이 그만큼 잘 녹음을 해주었다”며 “재진씨 보컬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포지션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전에는 자기 포지션을 정해놔야 했는데, 보컬이든, 랩이든, 한 명이서 다 할 수 있게끔 각자 연습을 많이 했다. 다시 한번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수원은 “저희 앨범이 2년 4개월 만에 나오다 보니, 그 전부터 보컬적인 부분에 능숙하게 어떻게 올리려 할까 생각했다”며 “스킬적인 것보다는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성대도 높고, 안 좋은 단점이 보이는 걸 보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연습해왔다. 그 결과가 많은 분들이 듣기에 좋게 느껴지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덕도 “저도 노래와 랩을 연습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랩 스타일이 많이 변해서 저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녹음을 했었다”고 말했다.



1997년 1집 ‘학원별곡’으로 데뷔해, 아이돌 가수로 23주년이 된 젝스키스, 긴 세월을 아우르는 단어에 대해 은지원은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가수이지만, 숙제인 게 대중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중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룹이고 그 때 당시 신비주의가 추세였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 없이 모든 예능에 출연하고 그런 걸로 이름을 많이 알리고 대중들에게 알린 만큼 저희는 대중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저희에게 큰 숙제고 어떻게 만족시켜드릴까 생각하고 디딤판이 되어주는 게 대중성 같다. 어느 한 쪽으로 색깔을 뚜렷하게 하다가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색이 없다면, 그렇지만 모든 아티스트들의 숙제가 대중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아닐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남다른 팀워크를 꼽았다. 은

지원은 “사실 6명에서 시작해서 4명으로 인사드리게 됐다. 그만큼 저희끼리 뽕뽕 뭉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적은 만큼 모여있는 시간도 많고 얘기도 많아졌다.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앞으로 방향이라 더 뽕이 깊어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했다. 예전엔 왠지 지킬 장난만 쳤다면 이제 진솔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장수원은 “멤버들끼리 항상 돈독하고 친하게 지내왔다. 멤버 수를 떠나서 지금도 끈끈하고, 장난도 개구쟁이처럼 더 칠 때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들의 끈끈함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저희들 장점인 것 같다. 티격태격해도 녹음하고 활동할 때 챙겨주는 게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지원은 “육심 같아선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내고 싶다. 언제까지라고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쫓고 싶다”며 “멤버들 덕분에, 저를 형이라고 잘 따라주고 저도 멤버들과 같이 티격태격 하지

만 잘 지내니까 유지가 된다. 이 나이 먹도록 누구 하나 꼴보기 싫었으면 유지 못했을 것이다. 멤버들이 좋으니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장수원도 “팀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직 기다려주시고 좋아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덕분이다. 체력이 남는 한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은지원은 숫자가 들어간 ‘젝스키스’ 팀 이름에 대해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그래도 팀명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다.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냥 이 이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팀 이름이라 그걸 바꾸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뀌어줬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네 명이서 더욱 더 뽕뽕 뭉쳐서 멋진 젝스키스, 성장한 젝스키스의 모습을 대중분들에게 더욱 알리겠다. 더 열심히 하는 젝스키스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인생 끝나는 줄” 양준혁, 사생활 스캔들 해명→깜짝 열애 고백까지

“나는 술 먹고 실수 안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양준혁이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 현재 열애 중이라는 사실까지 고백했다.

27일 오후에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밥먹다’)에서는 한국 야구의 레전드 양준혁이 등장해 최근 구설에 오르내린 사생활 스캔들에 대한 언급, 야구선수 시절 에피소드 등을 밝혔다.

양준혁은 지난해 SNS를 통해 확산된 사생활 스캔들과 관련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다행히 그때 정면으로 교제 사실을 공개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술 먹고 이런 걸(실수)

안 한다”면서 “처음에는 그 여성을 좋은 뜻으로 만나다가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준혁은 11세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 집안을 일으키고자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밝혔다. 양준혁은 “아버지가 장사를 했는데 불이 세 번이나 났고, 어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다”면서 “야구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했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아 바로 부모님께 드렸다”고 했다.

은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계입도 못 나가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구단에서 부르더라”며 “감독님이 이제 너를 안 쓸 것 같다”는 구단 측의 말에 10초 만에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팀에서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게 되

면 마련없이 은퇴를 하려고 했다”며 “구단에서 고맙다고 하더라. 스타를 은퇴시키려고 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송 말미 양준혁은 열애 사실을 고백했다. 김수미가 “여자 있어, 지금”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양준혁은 제작진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열애 중인 사실을 시로했다.

양준혁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수미) 선생님의 눈을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김수미는 열애 사실을 고백한 양준혁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올해 연말에 결혼하게 되면 하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수미는 양준혁을 향해 “애 낳을 수 있어?”라는 질문을 건네 양준혁을 당황하게 했다. 양준혁은 “아직까지 그 정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어 양준혁은 시청자들을 향해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라며 수줍은 고백을 이어갔다. 이어 양준혁은 결혼 장소를 미리 정해놨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고, 김수미는 야구장을 적극 추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양준혁의 기본 소식을 알렸다. 한편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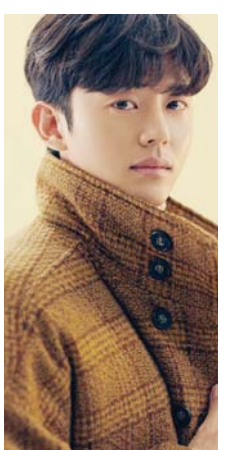
이지훈 “공개열애 NO 결혼도 아직 생각 없어요”

배우 이지훈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진행된 KBS 2TV 수목드라마 ‘99억의 여자’ (극본 한지훈, 연출 김영조) 출연 배우 이지훈은 종영 인터뷰에서 그는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이지훈은 “결혼은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40살에 가라고 하신다. 내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이 결혼할 때가 됐나보다” 하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아이를 좋아한다. ‘육룡이 나르샤’ 때 다름이를 알게 됐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집에 와서 잔다. 애를 키우는 느낌이다. (웃음) 이번 드라마에 같이 출연한 우리도 너무 예뻐서 곧 만나서 우동을 먹으려고 한다”라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어 “아파트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뻐서 말을 걸고 그러다”며 결혼을 하면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한다. 아이는 내가 다 키울 거다. 미래의 와이프 대신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애에 대해서는 “사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나 혼자 알려고 한다”며 “지금 열애 중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에일리, 빌리 아일리시와 친분 인증...그라미 5관왕 축하

오는 8월23일 단독 내한공연

가수 에일리가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와의 친분을 인증했다.

에일리는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축하해 빌리 아일리시, 너의 해야”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한 장 게시

했다. 사진 속에는 빌리 아일리시와 에일리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빌리 아일리시는 이날 개최된 제62회 그라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신인상’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앨범상’ ‘올해의

레코드상’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 등 총 5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빌리 아일리시는 오는 8월23일 아시아 투어 ‘웨어 두 위 고?’ (Where Do We Go?)의 일환으로 단독 내한 공연을 연다.

뉴스1

